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당국, 2차 신용위험 평가 실시

□ 12개 주채권은행은 '09.3.9~26 기간중 건설·조선업체 대한 2차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20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음.

o 신용위험평가 결과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할 업체는 총 15개사(건설 13개사, 조선 2개사)이며, 채권금융기관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총 5개사(건설 4개사, 조선 1개사)로 나타남.

□ 20개 건설·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,960억원 수준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.

o 2차 평가대상 74개 건설·조선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'09.2월말 현재 총 9.2조원이며, 이중 구조조정 대상 20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.6조원에 달함.

o 지난 1차 신용위험평가 후 워크아웃 추진대상기업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들이 예금인출을 제한,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애로가 발생하였으나,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협조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임.

□ 정부 및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.

o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·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,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(Fast Track)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계획임.

o 4월부터는 해운업체 신용위험평가,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.

(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, 3/27)